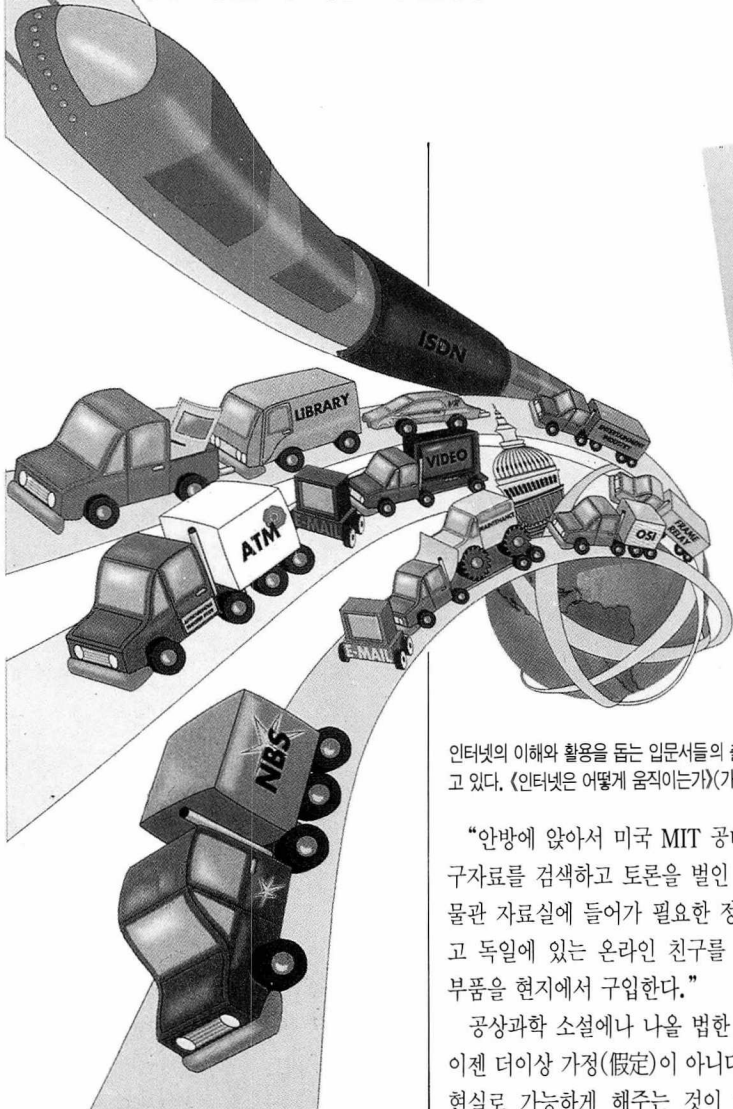


‘정보의 바다’ 인터넷 입문서 활기

컴퓨터 사용자들의 폭발적 관심 반영 ... 전문용어 등 문제점도 지적



인터넷의 이해와 활용을 돕는 입문서들의 출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남사) 중에서.

“안방에 앉아서 미국 MIT 공대 교수의 연구자료를 검색하고 토론을 벌인 다음 대영박물관 자료실에 들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독일에 있는 온라인 친구를 통해 오디오 부품을 현지에서 구입한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나올 법한 이런 현상은 이제 더이상 가정(假定)이 아니다. 이 가정을 현실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터넷



(INTERNET)이다. 20세기는 고속도로로 건설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21세기는 인터넷에 의해 구축되는 정보고속도로에 의해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임이 분명하다.

인터넷은 이러한 정보통신 사회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전세계 5백만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이다. 세계의 주요 대학 학술기관 기업 단체들이 거의 모두 참가

하고 있는 명실상부하게 현존하는 최대의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열풍은 지난해 6월 한국통신이 ‘한국인터넷(KORNET)서비스’를 가동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상용화하기 시작, 기업과 대학은 물론 일반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어서 인터넷의 개념과 접속방법, 효율적인 활용요령 등을 소개하는 입문서들의 출간도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속도가 서점가를 통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인터넷 서비스’로 상용화 시작

인터넷 통계기구인 ‘인터넷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미국 2천만명, 일본 50만명 등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무려 4천만명에 이르며 매년 2배의 성장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은 지구촌 130개국의 3백50만대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정보고속도로로서 미래사회의 정치 경제 학술의 개념을 뒤바꿔 놓을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가 2만명을 조금 넘어서는 한국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이같은 상황에서 95년들어 불어닥친 세계화 바람과 기업과 대학 등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국내에서도 한국에 관한 정보를 영어로 서비스하는 ‘코리아콤’을 개설하는 등 ‘인터넷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입문서들의 활발한 출간은 이러한 토대를 세우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 관한 입문서들의 출간이 절실한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이 하이텔, 천리안 등의 정해진 정보제공자들을 통해 일방적인 자료를 얻는 기존의 컴퓨터 통신의 운영체제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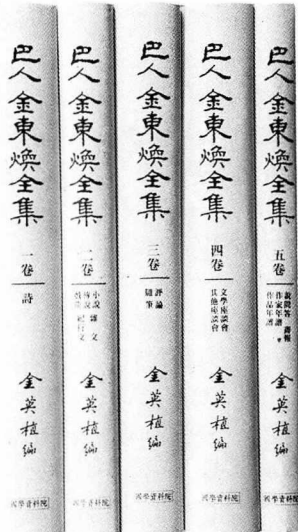
즉, 컴퓨터 통신의 DOS 명령어로는 인터넷을 운용할 수 없고 반드시 유닉스(UNIX)체제에 의해 움직이므로 컴퓨터 능통자라 해도 처음부터 사용법을 익혀야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문고 등 서울시내 대형서점에 나와 있는 인터넷 입문서는 대략 20종 정도. 번역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들 입문서는 인터넷의 개념에서부터 전자우편 월드와이드웹, 베로니카, 코퍼, 유즈넷, 텔넷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 접속방법과 주요 호스트 컴퓨터들의 주소

화제의 책

김동환 문학인생 총결집

김영식 엮음 《파인 김동환전집》 (총5권)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서사시 <국경의 밤>으로 널리 알려진 파인 김동환의 전작품을 수록한 전집이 그의 아들에 의해 엮여져 나와 주목을 끈다.

총5권으로 나뉜 시와 소설 평론 등 그가 남긴 글들을 모두 수록해, 일제 말기와 해방 전후, 그리고 6·25전쟁 등 민족적 한의 역사와 함께했던 파인의 ‘문학인생의 결실’을 담아낸 셈이다.

1권엔 <금성>지에 양주동이 추천하며 등단했던 시 <적성을 손가락질하며>를 비롯해 처음으로 아호 ‘파인’을 사용하며 쓴 시 <북

청물장사>와 <산너머 남촌에는> <국경의 밤> <봄이 오면>등 주옥같은 450편의 시를 연대순으로 엮었다.

2권에는 <전쟁과 연애> <추격> <채판장과 코> 등 소설 3편과 <자장이 부르는 여성> <바지저고리> 등 희곡 7편과 기행문 등 잡문을 수록했다. 또 3~5권에는 평론 57편 수필 83편을 비롯해 외국시가의 번역물, 민족잡지 발행인 시절 주관하던 <삼천리>지와 <삼천리문학>지에 게재된 좌담회 내용도 수록해 문인으로서, 민족적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50~70년전 사이에 출간된 옛책에 실렸던 원형 그대로를 옮겨 담아 당시 활자체의 색다른 맛도 느낄 수 있다. (291-7948)

국학자료원/A4/각 500면 내외/1질 150,000원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로 불리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때맞춰 서점가엔 인터넷의 개념과 접속방법, 효율적인 활용 요령 등을 소개한 입문서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아직 사용자의 수준처럼 초보단계인 이들 관련서는 시시각각 확대되는 인터넷의 기능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나 '정보바다'로 가기 위한 필수길잡이로 인식되고 있다.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예제와 명령어 화면 등을 사용,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

현재 서점에서 독자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입문서로는 가남사에서 나온 《인터넷의 시작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인터넷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인터넷 엘로페이지》 등 일련의 책과 《인터넷의 이해와 활용》(교학사), 《인터넷의 모든 것》(인포북), 《인터넷》(성안당) 그리고 영어판 《인터넷 101 대학생가이드》《THE INTERNET COMPLETE REFERENCE》 등이 있다.

관련서적 출간은 아직 '초보단계'

《인터넷의 시작과...》는 알렌 와이어트의 저서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한 책으로 초보자들에게 필요한 인터넷의 기초와 PC 및 매킨토시 등 각각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 접속하는 방법, 아키(ARCHIE) 고퍼(GOPHER) 등의 탐색도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활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어떻게...》는 컴퓨터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책 전체를 재미있는 일러스트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엘로...》는 원격접속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꼭 필요한 전세계 호스트 컴퓨터들의 주소를 수록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으며 6개월에 한번씩 수정본을 출간하고 있다.

《인터넷의 이해와...》는 접속방법과 국내 및 국외의 전문정보를 찾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모든 것》은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와 인터넷의 상업적 활용에 이르기

까지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서점가의 인터넷 입문서들은 대다수 일반인들의 이해와 활용 수준처럼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전문 통신서비스 회사인 '아이네트'의 신중현 실장은 "작년말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인터넷 입문서들 중 상당수가 시시각각 확대되는 인터넷의 기능과 발달과정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고 실용적인 관련서적을 기대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관련서적의 출간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 입문서는 대부분 4×6배판 이상의 큰 판형에 1만원~2만원 정도의 고가로 나와 있어 일반독자들로부터 "휴대하는 데 불편하고 선뜻 구입하기가 꺼려진다"는 불만을 듣기도 한다. 굳이 두꺼운 지질에 커다란 활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또한 오자가 많거나 전문용어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 초보단계에 있는 인터넷 입문서들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부가가치 출판에 촉매로서의 가능성

인터넷이 정보화 사회의 열쇠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인터넷이 출판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부가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다.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매달 1.5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2010년까지는 매머드 광고비를 설치, 국내에서는 입체 영상회의나 분산 데이터 베이스 검색 및 슈퍼컴퓨터간의 병렬처리 전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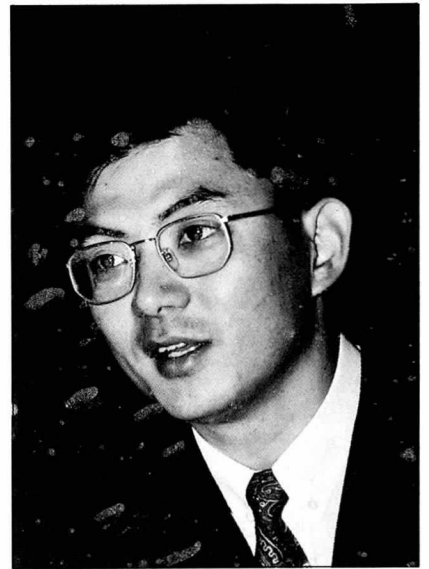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인터넷 전문가들은 "전세계 4천만명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거대한 가상공간(사이버스페이스)을 한권의 책으로 설명해내는 것은 아무리 입문서라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다. 활용분야, 접속방법 등 여러가지 초기 요인과 독자의 계층에 따른 출판전문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전문필자의 확보와 양성,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정확하고 앞선 기획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제 인터넷은 고부가가치 정보가공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에 출판계도 귀 기울일 때인 듯싶다.

—허 연 기자

인터뷰

“세상은 바뀌고 있다”

인터넷으로 저술·강의하는 황승연 교수



“독일 통일과 그 이후의 사회적 변화양상을 인터넷을 통해 마치 현지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충격과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얼마전 미국으로 유학 갈 예정이던 제자 하나가 인터넷을 이용해 자취방을 미리 구해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인간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95년 1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채택강의를 실시해 마스크의 집중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경희대의 황승연 교수(37·사회학)는 그야말로 ‘앞서가는 신세대 교수’이다.

그는 인터넷을 연구와 강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가 최근에 정한 경희대 사회학과와 슬로건이 “함께 인터넷을 타고 가자 세계로!”일 정도이다.

“제가 인터넷에 처음 들어간 것은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92년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제가 공부한 독일 자아르 브뤼켄대학 도서관에 들어가 하루 전에 발표된 논문을 검색하면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황교수가 느낀 충격은 바로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도움을 받은 분야는 독일 통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귀국한 다음 독일에서 벌어진 엄청난 변화와 그것이 불러온 사회적 인 반향들을 저 자신이 독일 현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들에 관한 자료를 국내에서 책으로 읽고자 했다면 아마 몇년은 족히 걸렸을 겁니다.”

황교수는 또 입학시험도 강의실도 필요없는 인터넷을 통한 가상대학, 즉 정보공간 안에서 운영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대학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학시험에서 떨어졌다고 교육의 기회를 평생 박탈해 버리는 것은 교육의 근본원리에 어긋나니까.”

황교수의 생각은 가히 혁명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생각이 불과 얼마 안남은 미래에 실현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인터넷 전문가인 앨 고어 부통령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화성까지 전달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나섰고, 얼마전 한국에 왔던 빌 게이츠는 인공위성을 통한 무선 인터넷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우리는 각종 개방에 따른 압력을 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수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료들을 데이터 베이스화시켜 해외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경쟁력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황교수의 말은 모 백과사전의 CD롬 작업이 영업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돼버리는 국내 출판업계의 정보화 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허 연 기자